

출장결과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일본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FTA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FTA와 식량안보를 양립한다는 원칙에서 시장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FTA와 동시에 실시되는 직불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의 유무를 비롯하여 어떠한 전업농이 형성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홋카이도 논농업지대 및 밭농업지대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개황, 직불제의 효과와 문제점, 향후 의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출장자

- 김태곤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3. 출장지역 및 기간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 삿포로(札幌)
 - 토우마정(当麻町)
 - 오비히로(帯広)
 - 메무로정(芽室町)
 - 오토후케정(音更町)
- 2010년 11월 14(일)~19일(금) 5박 6일

4. 조사항목

- ☐ 홋카이도 농업조사
 - 농업구조 변화
 - 직불제 실시동향 등
- ☐ 농가조사
 - 농업경영실태
 - 직불제 실시동향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 ☐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
 - 仁平 恒夫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 農業経営研究팀장
 - 渋谷 美紀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 農業経営研究팀 主任研究員
 - 島 義史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 農業経営研究팀 主任研究員
- ☐ 北海道 農政部
 - 今井 聡裕 北海道 農政部 食の安全推進局 農産振興課 논농업担当課長
 - 秋元 勝彦 北海道 農政部 食の安全推進局 農産振興課 논농업主幹
 - 小桧山 久寿 北海道 農政部 食の安全推進局 農産振興課 밭농업主幹
- ☐ JA北海道農協中央会
 - 入江 千晴 JA北海道農協中央会 基本農政対策室 次長
 - 石田 健一 JA北海道農協中央会 農業対策部 水田農業課長
- ☐ JA当麻
 - 西川 泰弘 JA当麻 常務理事
 - 住田 昌之 JA当麻 米穀課長
 - 大柳 陽司 JA当麻 米穀課 主幹
 - 松田 武 当麻町 農林課長
- ☐ 農家
 - 安部 稔 当麻町, JA当麻 米米LOVE協議会 会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 宮崎 良和 当麻町, JA当麻 稲作研究会 会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 ☐ 帯広畜産大学
 - 樋口 昭則 帯広畜産大学 地域環境学部 農業経済学分野 教授
 - 仙北 谷康 帯広畜産大学 地域環境学部 農業経済学分野 準教授

関根 久子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 芽室研究拠点 研究員

☐ JA芽室

柴田 均 JA芽室 代表理事常務

野沢 亮 JA芽室 営農部 部長

西谷 洋人 JA芽室 営農部 営農振興センター センター장

☐ 農家

西川 キミオ 芽室町, 가족경영, 밭농업 40ha

竹中 章 音更町, 有限会社 竹中農場 代表, 밭농업 40ha

☐ 공동조사자

酒井 富夫 富山大学 経済学部 教授

朱 俊峰 中国農業大学 経済管理学院 助教授

6. 조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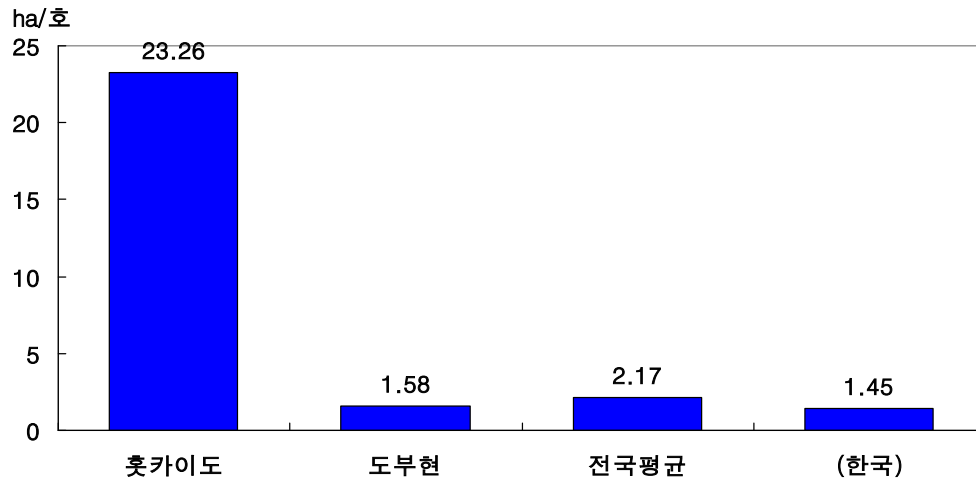
일자	일정	숙박지
11. 14(일)	출국(인천-삿포로) KE876(10:05-12:35)	삿포로가든팔레스 011-261-5311
11. 15(월)	조사 홋카이도 농정부 농산진흥과 JA홋카이도중앙회 기본농정대책실 농업대책부 이동 삿포로(札幌)-아사히가와(旭川)(열차)	아시히가와그랜드 0166-24-2111
11. 16(화)	조사 JA토우마(当麻) 미곡과 농가(2)	상동
11. 17(수)	이동 아사히가와-오비히로(帯広)(열차) 조사 帯広畜産大学 地域環境学研究部門	토카치가든즈 0155-26-5555
11. 18(목)	조사 JA메무로(芽室) 농가(2) 이동 오비히로-삿포로(열차)	케이한삿포로 011-758-0321
11. 19(금)	귀국(삿포로-인천) KE877(13:50-17:05)	

II. 출장 결과

1. 홋카이도 농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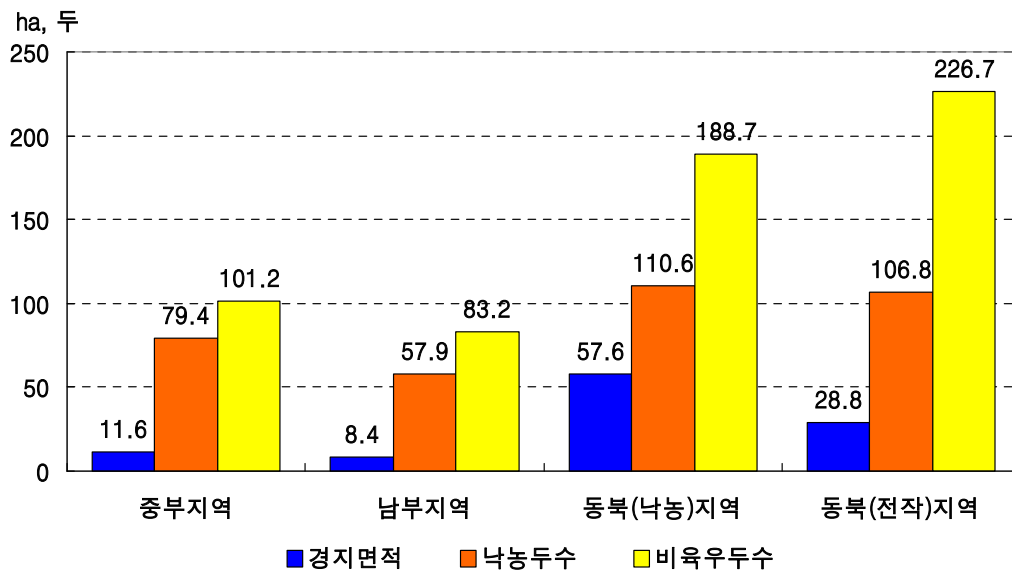
- 홋카이도 농업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규모면에서 보면 유럽 수준이며, 전업농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에 유사하다.
- 2010년 농림업센서스 잠정치에 의하면,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부현 평균 호당 경영면적은 1.58ha이나 홋카이도는 23.26ha로서 도부현의 15배에 달한다. 참고로 한국의 2009년 평균면적은 1.45ha에 불과하다. (그림 1)
- 농가수는 2010년 163만 1,000호로서 이 중 홋카이도는 4만 4,000호, 도부현은 158만 7,000호이다.
 - 주업농 비율은 홋카이도 72.7%, 도부현 20.7%이다.
 - 전업농 비율은 홋카이도 61.4%, 도부현 26.8%이다.
 - 참고로 2009년 현재 한국은 주업농 61.0%, 전업농 58.0%이다.
- 홋카이도 내에서도 지역별 농업구조의 차이가 있다.
 - 중부지역은 평야지역의 논농업지대이며, 수도·채소·전작 등이 중심이다.
 - 남부지역은 중산간지역으로서 채소와 전작, 축산, 수도 등이 중심이다.
 - 동부지역은 대규모 농업지역으로서 낙농지대는 낙농과 기타 축산이 중심이고, 전작지대는 소맥이나 사탕무 등 전작과 낙농·채소 등이 중심이다.
- 지역별 경지규모를 보면, 남부지역은 8.4ha에 불과하나 동북지역 낙농지대는 57.6ha에 달한다. 동북지역에서는 낙농은 호당 111두, 비육우는 227두 정도의 대규모 경영을 하고 있다. 참고로 동북지역의 전작지대에서는 전업농가는 40ha 이상을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는 2, 3개소 정도에 단지화되어 있는 등 경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2)

그림 1 홋카이도의 호당 경영규모, 2010년



주 : (1) 도부현(都府縣)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제외한 전지역
 (2) 일본은 2010년, 한국은 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성 「2010년 농림업센서스결과 개요(잠정치)」 2010. 9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2010

그림 2 홋카이도 지역별 호당 경영규모, 2006년



주 : 홋카이도 농업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중부지역 : 평야지역의 논농업지대, 수도·채소·전작 중심
 ② 남부지역 : 중산간지역, 채소·전작·축산·수도 중심
 ③ 동북지역(낙농지대) : 낙농·기타 축산 중심
 ④ 동북지역(전작지대) : 전작·낙농·채소 중심
 자료 : 홋카이도 농정부

2. 농업생산 동향

- 2008년 홋카이도의 농업생산액은 1조 251억엔으로 전국의 11.8%를 차지하며, 전국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는 1984년 이후 1조엔을 유지하고 있다.
- 주요 생산물은 쌀이 전국의 7.3%, 소맥 61.5%, 대두 21.7%, 팥 88.5%, 감자 79.0%, 사탕무 100%, 양파 56.4%, 당근 30.8%, 호박 49.8%, 옥수수 46.1%, 무 11.1%, 생유 48.8%, 쇠고기 15.4%, 돼지고기 5.8%, 경종마 96.4% 등이다.
 - 4대 작물은 맥류, 사탕무, 감자, 두류 등이다.

3. 지역산업 발전전략

-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홋카이도는 지역 산업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이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지역의 농가와 가공·유통업자 등에 의한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일관된 활동을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가가치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http://www.prep.hokkaido.lg.jp/ns/shs/Fukakachi.htm> 참조
- ‘소맥 체인지!’ 추진
 - 홋카이도 내에서 가공·소비되는 소맥을 수입산에서 지역산으로 전환하는 ‘소맥 체인지!’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가공, 소비 등의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소비자·실수요자 니즈에 따른 소맥의 생산확대나 신상품 개발·판로확대, 소맥 체인지!운동의 PR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 ① 소맥의 생산에서 가공·유통, 소비 등 관계자에 의한 ‘소맥 체인지! 네트워크회의’ 설치

- ② 춘과 소맥의 식부확대, 수요에 따른 신품종 개발·보급
- ③ 신상품 개발, 판로확대 등을 추진하는 소맥 체인지! 모델 육성
- ④ 지역소맥을 사용하는 ‘소맥 체인지! 서포터 등록점포’의 보급확대 등에 의한 소맥 체인지! PR활동 전개

- http://www.prep.hokkaido.lg.jp/ns/nsk/mamemugi/mugi_change_top.htm 참조

4. ‘홋카이도 농업·농촌 진흥조례’ 제정

□ 조례

- 홋카이도는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홋카이도 농업·농촌진흥조례’를 제정, 홋카이도 농업·농촌을 귀중한 자산으로 육성하여 차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조례에서는 ‘홋카이도의 추진 자세’와 ‘농정의 기본적인 틀’ 등을 수립하여 지역중시의 원칙에서 국가의 시책과 함께 홋카이도 자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제3차 홋카이도 농업·농촌진흥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 이 조례에 근거하여 ‘홋카이도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설치, 이를 재원으로 하여 도민이 ‘농업이나 농촌’을 친근하게 접근하고 널리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비전과 전략 : 향후 10년 정도를 전망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기본방침

- 식품 : 소비자와 생산자가 식품을 통하여 강한 연대감을 가진 농업·농촌
 - 소비자의 신뢰에 지지된 안전·안심하는 식품의 시스템 구축
 - 풍요로운 식생활을 확보하는 식량의 생산과 제공
 - 지산지소·식육 등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 강화
- 환경 : ‘환경’과 조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농업·농촌

- ‘환경’과 조화한 생산활동 추진
-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전원공간 창조
- 주체 : 다양한 경영주체가 활발하게 활양하는 농업·농촌
 - 차세대를 담당하는 다양하고 활발한 인재육성
 - 지역농업을 지지하는 경영체나 조직 육성
- 지역 : 개성을 살린 지역이 활성화하는 농업·농촌
 - 개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
 - 농업과 교류·즐기는 장의 제공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의 장 형성

5. 농가조사

(1) 安部 稔(当麻町, JA当麻 米米LOVE協議會 會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 농업진입

- 현 장소에서 3대째 농업경영이며, 본인은 1973년 고교 졸업이후 농업에 취업한 후 계속 종사하고 있다.
- 선대의 취농은 홋카이도 개척지의 입식은 아니며, 최초 미야기현(宮城縣)에서 노동자로 이주, 후에 농장에서 농업노동자로 종사, 그리고 소작농으로 발전하였다.
- 조부대에서 1ha, 부친대에서 4ha, 본인은 32세가 되던 1988년 경영이양을 받아서 현재 40ha로 규모확대를 하였다.

☐ 가족구성

- 가족 4명, 부인(55), 장남(29, 후계자), 모친(83)
- 장남은 삿포로농대학 출신, 8년전 취농, 겨울철은 제설작업 등 농외취업

☐ 경영개황

- 경영규모는 논 40ha, 작업수탁 2ha, 공동작업 30ha(임차 28ha, 전작 2ha) 등이다. 공동경작은 임의단체인 후루사토영농조합을 설립하여 경작 중이며, 당초 9인

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7인 조합이다.

- 규모확대를 추진하면서 기반정비를 통하여 구획도 확대하고 있다. 고령화, 농업자연급 수급 등으로 인근에는 임대료가 늘어나고 있다.
 - 주요작물은 쌀, 수박, 호박, 메밀, 지력증진작물 등
 - 쌀 36ha, 수박 0.4ha, 호박 2ha, 메밀 3ha 등
 - 답리작은 하지 않고, 연맥으로 지력증진
 - 전작은 메밀(3ha)과 연맥(0.8ha) 등 3.8ha(전작률 10%)
 - 본인, 부인, 장남 등 3인 종사
 - 처와 장남에게 월 30~35만엔 지급
 - 계절고, 일고 등 고용
 - 노임은 1일 12,000엔, 시급 750엔
 - 모내기후, 수박전정, 호박식부, 논두렁 풀베기는 부자가 연 2회 실시
 - 40ha 식부
 - 소유지 28ha, 임차 12ha(임차료는 8,000엔, 11,000엔, 14,000엔, 16,000엔/10a)
 - 판매금액
 - 2009년 5,000만엔(직불포함 6,000만엔, 전작장려금 100만엔)
 - 금년은 1,000만엔 감소예상
 - 향후 의향
 - 자식의 판단에 의존
 - 규모확대는 포기, 단지 논에 집중
 - 호별소득보상직불금은 500만엔 예상되나 기반정비 등이 바람직
- (2) 宮崎 良和(当麻町, JA当麻 稻作研究會 會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 ☐ 농업진입
- 조부가 토야마현에서 입식, 부친 거쳐 3대째 경영
 - 조부는 소작농에서 출발, 부친대에서 농지개혁으로 자작농
 - 당초 1.5ha로 시작

- 본인은 고졸 후 1970년 18세부터 농업취업, 당시 7ha, 현재 59세 40년 경력
 - 겨울철 농한기 트럭 운전, 택시운전 등

□ 가족구성

- 본인(59), 처(53)
- 장남(33), 자부(30), 손자 2남 2녀
 - 장남은 겨울철 제설작업 부업

□ 경영개황

- 40ha 경영, 20ha 자작, 20ha 임차(지주 10인)
 - 논 30ha(쌀 식부), 밭 1ha, 전작 10ha
 - 농지는 집근처에 20ha, 제2거점 20ha
- 상기 외에 7인 공동경작 30ha 추가
- 최근에도 지주 희망으로 농지 매입
 - 10년전부터 매도자 증가, 농지시장이 매입자 주도로 역전
- 작목
 - 쌀 30ha
 - 전작으로 대두 2ha, 연맥, 메밀, 채소, 호박 등
- 판매금액은 가격하락으로 2010년 3,000만엔 예상
 - 공제금·직불금·전작 장려금 1,000만엔
- 직불제 단가가 발표되자마자 미가하락 시작
 - 미가하락의 제1요인
 -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 경영존립 불가능
 - TPP는 자급률 목표와 양립 불가능
- 향후 의향
 - 쌀 식부 50ha 목표, 면적 늘려도 수입증가 보장은 없지만 확대
 - 품질 차별화하여 직거래 확대

(3) 西川 キミオ(芽室町, 가족경영, 밭농업 37ha)

☐ 농업진입

- 조부가 니이가타현에서 입식, 농업 시작
- 부친은 1933년생, 이린시절 이사
- 35세 경영이양, 27년간 농업종사

☐ 가족구성

- 본인(52), 처(50)가 농업 전종, 본인은 농한기 스키장 취업(12월~3월)
- 장남(26) 농협 임시직, 농업계속, 겨울철 제설작업
- 장녀(24) 별거
- 모친(75) 농작업

☐ 경영개황

- 27년전 30ha로 시작, 현재 밭 37ha

- 소맥 13ha
- 사탕무 10ha
- 감자 6ha
- 옥수수(스위트콘) 2ha
- 우엉 1.2ha
- 팥 3ha

○ 윤작체계

- 소맥-사탕무-감자-소맥
- 소맥-사탕무-팥-감자-소맥

- 농지는 10ha 구획 3매, 4ha, 3ha 등 5매로 구성, 전부 1km 이내에 위치

- 인근 밭은 당초 1구획이 30ha로 정비(가로·세로 540m 정방형)

○ 향후 의향

- 소득원 작물은 우엉, 풋콩 등의 가공

(4) 竹中 章(音更町, 有限會社 竹中農場 代表, 밭농업 40ha)

☐ 농업진입

- 1915년 조부가 기후현에서 이주
- 전후 30ha 시작

☐ 가족구성

- 본인(35), 처(28), 자(2)
- 부친(60), 모친(59)
- 조부(85), 조모(84)

☐ 경영개황

- 밭 40ha(중 임차지 2.8ha), 3단지 11매, 1.5km 이내에 위치
- 임야 7ha
- 인근 9호의 낙농가로부터 퇴비 구입
- 2006년 법인화(유한회사)
- 재배작물
 - 소맥 15ha
 - 대두 2ha
 - 사탕무 7.5ha
 - 팥 3.6ha
 - 고구마 6.8ha
 - 아스파라가스 2ha
 - 기타 콩 3ha 등

☐ 향후 의향

- 직불제는 경영안정에 유익, 일단 안심하고 경작가능
- 전작 4품목(소맥, 대두, 사탕무, 고구마)에 집중
- 서양파 도입 시험 중
- 학생들의 농작업 체험 등을 활용한 교류확대로 농업에 대한 이해, 판매력 향상

6. 수집자료

홋카이도협동조합통신사, 「홋카이도농업 2005」, 2005. 4
北海道 農政部, 「北海道 農業・農村の姿 2010」

北海道 農政部, 「北海道 水田農業をめぐる情勢」, 2010. 4

北海道 農政部, 「農家数」

北海道 農政部, 「平成22年度 戸別所得補償モデル対策の概要」

北海道 農政部, 「北海道 畑作農業をめぐる情勢」, 2010. 11

北海道 農政部, 「水田・畑作経営所得安定対策と戸別所得補償制度との生産費、販売価格、支援額の比較(畑作4品目)」, 2010. 11. 15

北海道 農政部, 「農業者戸別所得補償制度の本格実施」

北海道 農政部, 「米価下落と所得補償及び収入減少補填対策について(メモ)」, 2010. 11. 2

北海道, 「包括的経済連携に関する基本方針の閣議決定に関する知事のコメント」, 2010. 11. 9

北海道, 「食料供給力の確保に必要な対策の推進に関する提案書」, 2010. 11

北海道, 「第4期 北海道農業・農村振興推進計画(素案)」, 2010. 11

仁平恒夫, “地域水田農業ビジョンにみる今後の水田農業の方向と課題”,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農業経営研究」, 第90号(2005), pp.10-27

仁平恒夫, “道央水田地帯における水稻生産調整への農家対応と土地利用”, 「北海道農業研究センター農業経営研究」, 第82号(2002), pp.34-58

細山隆夫・仁平恒夫, “大規模化と地域差拡大の下での担い手の展開状況”, 「農業構造改革の現段階-経営所得安定対策の現実性と可能性-」 日本農業年報 第53号(2007), 農林統計協会, pp.70-84

農林水産省, 「農業者戸別所得補償制度について-2011年度概算要求-」, 2010. 9

農林水産省, 「農業者戸別所得補償制度概算要求関連資料」, 2010. 9

仙北谷康, “十勝畑作経営の現状・課題・経営所得安定対策”(ppt), 帯広畜産大学, 2010. 11. 17

松木靖, “直接所得補償制度と北海道農業”, 2010年度 北海道農業経済学会シンポジウム報告, 2010. 9. 23

平石学, “水田・畑作経営所得安定対策が畑作農業に及ぼした影響”, 2010年度 北海道農業経済学会シンポジウム報告, 2010. 9. 23

志賀栄一, “北海道水田作地域・経営方式の分化と戸別所得補償制度(モデル)対策の影響”, 2010年度 北海道農業経済学会シンポジウム報告, 2010. 9. 23

伊藤房雄, “政策転換期における東北水田農業の対応”, 2010年度 北海道農業経済学会シンポジウム報告, 2010. 9. 23

(이상)